전주시의회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 독식'

혁신진보시민연대 측 "협치 실종" 반발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 회기 시작부터 거센 갈등에 휩싸였다.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혁신진보시민연대 측은 "협치는 사라지고 다수당의 독식만 남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과 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범야권 연대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장에 온혜정 의원, 행정위원장에 최명권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정명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에 이성국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최서연 의원이 출마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 측에서도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행정위원장에 채영심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채영병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에 채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홍대규 의원 등 4명의 후보를 내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의 벽을 넘지 못해 전원 낙선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 자리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의회 주요 직책을 사실상 모두 확보하게 됐다.

선거 직후 전화 인터뷰에 응한 혁신진보시민연대 원내대표인 경현철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경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며 "100% 독식으로 혁신진보시민연대 소속 10명의 야당 의원을 사실상 배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구조에서는 애초부터 야당이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다수당이 유리하도록 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진보시민연대 소속 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더 많이 배치되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도록 판을 짜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경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의를 통해 의회 운영을 합께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인선을 모두 마친 뒤 '이미 결정이 끝났다'며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보완해 원 구성 이전 반드시 협상 기간을 갖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임에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주시의회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모두 다수당이 독점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리싸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경 의원은 "한 자리라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부위원장 자리 하나도 주지 않는 상황을 단순한 자리다툼으로 보는 것은 전주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 유권자들은 범야권에도 28% 가까이 되는 표로 의미 있는 의석을 부여했다"며 "그 민의를 원 구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성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비민주당(혁신진보시민연대를 지칭) 소속 의원들이 이를 두고 '원구성 독식'이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민주당 교섭단체로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공식 협의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18일 1차 의원총회 이후 6월 25일 2차 의원총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어떠한 공식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단의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우리 당을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책임있게 임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혁신진보시민연대 측이 협치 부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조례 제·개정과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수결 처리 구조의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협치와 소수 의견 보장이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임종우 삼천3동 지사협 위원장 취약계층 아동 위해 600만원 기부

전주시 삼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종우 위원장이 취약계층 아동과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임종우 위원장은 지난 3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우 위원장은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2024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기부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주거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원사업 통해 추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혹서기 냉방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센터가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의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여름철 건강 위험에 노출된 주거 취약가구에 맞춤형 냉방용품을 지원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다.

지원 품목은 △벽걸이 에어컨 △소형 냉장고 △제습기 △선풍기, 냉감이불 등 냉방용품이며, 가구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 품목을 지원한다.

단, 일부 품목의 경우 가구 방문 상담을 거쳐 주거 환경을 확인한 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8일까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센터는 기초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은주 전주시주거복지센터장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가 없어 여름을 보내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혹서기 냉방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문의는 전주시주거복지센터(063-281-0160~1)를 통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부모가족 및 여성권익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전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한부모가족·여성권익시설에 100인분 지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성자)는 지난 3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부모가족 및 여성권익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

협의회 회원들은 해마다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자원봉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한 삼계탕 100인분의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조리해 밑반찬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여성보호시설 등에 전달했다.

정성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위 속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삼계탕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전주성 찾아 전북현대 승리 응원

선수단 격려하며 지역 연고 프로구단과 협력 강화

조지훈 전주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전북현대모터스FC의 승리를 응원했다.

조지훈 시장은 지난 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K1리그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를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지역 연고 프로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전북현대를 응원하며 선수들의 선전과 승리를 염원했다.

특히 조 시장은 시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지역 연고 프로구단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소중한 문화·스포츠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제35보병사단장과 함께 전북현대 선수단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올 시즌 선전과 홈경기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북현대모터스FC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스포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북현대모터스FC는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선9기 전주시는 지역 연고 구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 화합을 이끌고, 시민이 함께 즐기고 하나 되는 스포츠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